

으뜸양천과 함께 으뜸복지를 실천한
양천장애인복지 5년사

2009

제3편

양천장애인 종합복지관 5년의 결실

- 제1절 장애인복지 브랜드 “20”
- 제2절 사진으로 보는 장애인복지
- 제3절 언론으로 보는 장애인복지

제1절 장애인복지 브랜드 “20”

1. 장애인복지서비스에 2TOP 시스템을 도입하여 서비스의 질적·양적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역할도 재조명되고 있다. 기존 장애인복지는 복지관을 찾아오는 장애인을 위한 치료·재활프로그램에 치중하였지만, 복지패러다임의 변화는 복지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처럼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08년도에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원화하는 2TOP 시스템을 도입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기구조직을 개편하여 재가복지팀을 신설함으로 복지관 방문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고, 업무통폐합을 통해 복지관 내에서 제공되는 재활·치료프로그램의 질적·양적 성장에도 주력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복지관에서 제공되는 재활·치료서비스는 인력 및 시설의 한계로 대기자를 양성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대기자 ZERO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감사품 제도를 도입·운영하여 2,692명에 이르던 대기자를 1,470명으로 대폭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고, 각 영역의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세분화, 전문화, 체계화하는 등 전문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새로운 기법 등을 제공함으로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질적 향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권, 차상위 장애인가정을 직접 방문, 실태를 조사하여 2007년 230명에 머물던 서비스 대상자를 569명으로 증가시켜 생활편의시설지원, 방문 이미용, 방문 컴퓨터교육, 세탁지원, 이사지원, 찾아가는 문화공연, 활동보조사업, 헬퍼지원 등 삶의 질이 향상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돕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9년 8월 현재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총 192개로 2005년 대비 182% 증가하였으며, 서비스 이용인원도 실인원 4,958명, 연인원 135,087명에 이르는 등 2TOP 시스템 도입으로 장애인복지에 질적·양적으로 완벽을 기하였다.



2. 최고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손상된 기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는 거주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두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이중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의 장애심화를 예방하고 손상된 기능의 향상을 위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2009년 8월 현재 전국에는 155개의 장애인복지관이 있으며, 모든 장애인복지관들은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자 의료재활, 심리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도 양천구를 대표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고자 미술치료, 음악치료,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수치료, 특수체육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직원들이 장애로 인하여 손상된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장애심화를 예방하고 장애로 인한 손상된 기능회복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개입하여야 하지만 장애인복지관들은 시설의 한계 및 인력의 한계로 인하여 장애인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순서를 대기해야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개선점으로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8년도부터 장애인들의 욕구가 집중되는 재활·치료 프로그램에 강사풀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함으로써 적시에 재활·치료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대기자는 대폭 감소하고 이를 반증하듯 손상된 기능이 회복되어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감소한 장애인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5년간 연인원 190,260명의 장애인에게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돕고, 보행 등 신체기능 향상, 사회적응력 향상 등 손상된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성과를 거두었다.

3. 장애인복지서비스 대기자를 대폭 감소시키는 선진 장애인복지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등록장애인은 2008년 12월 현재 2,246,965명이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의 장애인복지관은 2009년 6월 현재 155개소에 이른다. 이는 복지관 평균 1만5천여 명의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반증이다.

양천구에도 2009년 8월 현재 17,543명이 장애인이 등록되어있으며,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장애인은 전국 복지관의 평균보다도 높다. 이처럼 모든 장애인복지관은 시설 및 인력의 한계로 인해

언어치료, 물리치료, 수중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작업치료, 미술치료 등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장애인을 대기자로 양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현실을 타하기보다 이를 개선하고자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개관 당시에는 프로그램 이용순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 최초로 공개추첨을 도입하여 순서를 정함으로써 공정성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 당시부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대기자가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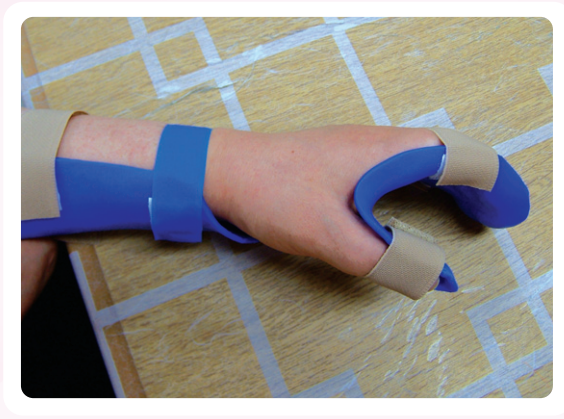
이처럼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도 모든 장애인복지관이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재활·치료서비스 이용 대기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였다. 하지만 2008년 예산 절감을 통한 대가지를 위한 7개의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으며, 시설 및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공동 프로그램 개발, 강사풀 제도 등을 도입·운영하였다.

그 결과 2007년말 5,216명에 이르던 재활·치료프로그램의 대기자는 2009년 8월 현재 2,461명으로 줄어드는 혁신적인 감소를 주도하였다. 특히 이러한 성과는 장애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로 볼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희망한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남다른 맘의 결실이다.

앞으로도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 2010년에는 2TOP 시스템을 완성하여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기 위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4. 보조도구를 맞춤형 제작 및 무료대여로 장애인의 기능향상을 도왔습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로 인한 신체적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로 인해 손상된 기능의 향상을 돕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에 따른 일부분은 보조도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많은 장애인들은 보조도구를 구매함에 있어 지식부족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맞지 않는 보조도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만만치 않은 보조도구의 가격으로

인하여 선뜻 구매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보조도구를 사용하여 얼마든지 일상생활뿐 아니라 직업활동에 이르기까지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다양한 사유로 불편함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8년 본격적으로 보조도구센터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보조도구센터에는 워커·실버카·지팡이·워킹벨트, 보행훈련기 등 자세 및 이동 보조도구와 스포츠헤더·접시가드·샴 방지캡 등 일상생활 보조도구, 빅트랩·인터페이스키보드·소프트 스위치 등 컴퓨터 보조도구 등 110여 가지에 이르는 보조도구를 비치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과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보조도구가 무엇인지 안내하고, 보조도구가 필요할 경우 본인에게 적합한지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조도구를 무료로 대여하고 상해보조도구의 경우도 무료로 제작·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하지보조도구의 무료제작도 지원할 계획이다.



5. 맞춤형 공과훈련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장애인의 취업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양천구의 경제활동참가 대상 장애인구는 10,720명으로 양천구 전체 장애인 중 61.4%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대입, 추계해 볼 때 양천구의 미취업상태의 장애인은 6,282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실태를 바탕으로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004년 개관시부터 취업 장애인의 고용유지 및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과 미취업장애인의 고용창출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을 단계적이고 체계적

으로 추진하여 구직장애인의 직업적 잠재능력 극대화를 통한 취업경쟁력을 강화와 더불어 장애인의 취업장벽을 낮추는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구직장애인의 직업적 잠재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개별화된 직업재활계획(IRP)을 수립하여 맞춤형 직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위해 직업상담 및 진단,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지원, 사업체개발, 컴퓨터교육 등 체계적인 직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현재까지 140여 명의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9년도에는 토피어리, 텔레마케터, 취업특강 등 맞춤형 직업공과훈련을 실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춰 변화하는 취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화된 직종훈련 실시, 중증장애인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자회사형 외주사업장, 공과사업단 운영, 직업재활시설 구축, 훈련형 그룹홈 개소 등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취업에 대한 곤란을 겪지않도록 차별화된 직업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6. 재활운동책자 · 발달수첩을 제작하여 가정에서 장애심화를 예방하도록 도왔습니다.

복지관 성인 장애인 이용자 중 편마비 장애인 비율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복지관 시설 및 인력에 한계가 있어 많은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애 심화예방과 재활의 극대화를 위한 자가운동 방법을 소개하는 도서를 제작·배포하였다.

제작된 도서에는 쉽게 알아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고자 5가지 분야로 나누어 ▲누운자세에서 운동하기 ▲앉은자세에서 운동하기 ▲선 자세에서 운동하기 ▲수중에서 운동하기 ▲도구를 이용해서 운동하기 등으로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내용에 대하여 각 대학교의 재활의학과 교수의 감수를 받아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추었다.

이와 더불어 장애위험군 및 장애를 갖고 있는 영유아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자 ‘우리아이 성장과정 발달수첩’을 제작하여 장애심화를 예방하고 각 시기별 양육정보를 제공하였다.

‘우리아이 성장과정 발달수첩’에는 60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사회성, 의사소통, 대근육, 소근육, 신변처리능력과 함께 인지영역이 제대로 발달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국 처음으로 시도된 이 책자의 호응도 폭발적이어서 당초 1,000부를 제작하여 어린이집, 부모, 유관기관에 제공하였으나, 전국 각지 등에서도 문의가 많아 추가제작에 돌입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7. 차별화된 부모대학을 운영하여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양천구 등록장애인 1만7천여 명 중 0~19세까지 아동 및 청소년은 771명에 이른다. 이들은 장애로 인하여 부모양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여 부모들은 자녀가 장애가 있음으로 자녀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양육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부담 등을 안고 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러한 부모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장애자녀에 대한 치료·교육 서비스를 운영하면서도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역량강화에도 주력하였다.

2005년도부터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해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 성공적인 양육사례, 성교육, 진로교육, 장애인부모 권익활동, 심리 및 정서지원 등의 다양한 교육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지금까지 시행된 부모교육을 보다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모대학으로 그 범위를 넓혔으며, 부모대학에 걸맞는 내용을 구성하여 장애인부모 200여명이 참여하는 제1기 부모대학을 성황리에 진행하였다.

제1기 부모대학은 ‘장애자녀의 미래설계를 돕기 위한 평생계획’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전문가가 강사로 초빙되어 공개특강 및 장애자녀의 교육, 주거, 소득, 재정계획, 사춘기 성교육 등 총 7주 과정으로 운영되어 부모들이 갖고 있는 막연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였다.

또한 이러한 교육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여 당초 1회로 시행하려던 부모대학을 하반기에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는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1회성 교육보다는 심도있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대학의 운영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8. 활동보조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하여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오늘날 장애인복지의 방향은 기존의 재활 패러다임에서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장애인이 자기결정권과 자기선택권을 충분히 행사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사회환경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에 2007년 3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동시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인등 서비스, 장애동료간 상담 등의 규정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는 동년 4월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도 이러한 법, 제도적 변화에 따라 2007년 5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사업초기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정보습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1급 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을 설명하고,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2007년 38명에 불과하던 이용자가 2008년 126명, 2009년 8월 현재 154명으로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였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활동보조서비스는 관내 타 사업수행기간보다 두드러지게 이용자가 늘어났으며, 이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질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무엇보다 장애인을 직접 대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보조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수교육 및 인성교육 등 철저한 관리가 뒷받침하였다.



이처럼 해를 거듭할 수록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은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이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검증된 교육을 연구·개발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증진과 사회참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9. 헬퍼지원사업을 전국 복지관 최초로 도입 2, 3급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다졌습니다.

지난 2006년도부터 정부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자립을 위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중증의 1급 장애인들은 실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충족받고 있다.

또한 2008년도에는 활동보조사업의 제공시간을 확대하여 1급의 중증 장애인이 자립생활과 사회생활의 참여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지만 단지 2급이라는 이유로 활동보조사업에서 제외된 장애인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도 전체 장애인의 66.2%가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나타났으며,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한 2008년 양천구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복지서비스 욕구조사에서도 1만6천여 장애인 중 63.3%가 일부 또는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장애인은 급수에 상관없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9년도에 전국 장애인복지관 최초로 2~3급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헬퍼지원사업』을 도입·운영하고 있어 타 지자체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또한 운영내용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와 동일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현재는 실인원 30명에게 매월 20시간의 외출, 가사활동지원을 하고 있지만,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2~3급의 중증장애인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10. 찾아가는 문화공연·맞춤형 나들이 등 재가장애인 삶의 질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8년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문화 및 여가활동을 'TV시청 및 비디오시청(36.1%)', '휴식(19.8%)' 등으로 무료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렇듯 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은 그 내용과 참여방법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장애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장거리 여행은 생각도 못하고 있으며, 60평생 살면서 바다를 눈으로 직접 본적도 없다는 답변도 있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처럼 장애인들이 여가·문화생활에서 소외되지 않고 지역주민과 함께 웃음을 나눌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재가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여가·문화지원사업을 펼쳤다.

먼저 2005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나들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참여를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맞춤형 체험위주의 여행을 실시하여 130명에게 특별한 경험을 안겨주었다. 특히 2TOP 시스템을 도입한 2008년도에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 저소득 재가장애인 200여 명과 함께 '여름바다 체험여행'을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각 지역으로 찾아가는 특별한 문화공연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더 이상 장애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문화생활에서 소외되지 않는 혁신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문화공연의 내용도 각설이타령, 마술, 국악, 노래자랑, 댄스 등 장애인의 욕구를 100% 반영하여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 한해동안 10회의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672명의 재가장애인이 관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에도 각 지역으로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차별화된 내용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11.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불편을 덜어 드렸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보면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선진화 구현,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문화활동 확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장애통합적 접근으로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한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통합사회 구현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각종 사회활동에 있어서 이동이나, 접근에 대한 제약없이 누구나 희망하는 사회적, 물리적 공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통합사회를 구축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전제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장애로 인하여 외출이 적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지원사업을 정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시행한 장애인 가정내 편의시설 지원사업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계단을 경사로로 개조하거나, 가정내 문턱을 없애 이동시 불편을 해소하였고, 복도나 벽면에 핸드레일을 부착해 안정적인 이동을 지원하였다



2008년부터는 가정 내 시설물을 리모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든 편의시설을 새로이 고안하여 리모컨으로 on/off 조절이 가능한 형광등과 현관문 개폐시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도어락, 그리고 여성장애인의 가사활동 편의를 위해 의류 건조대가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기능을 보유한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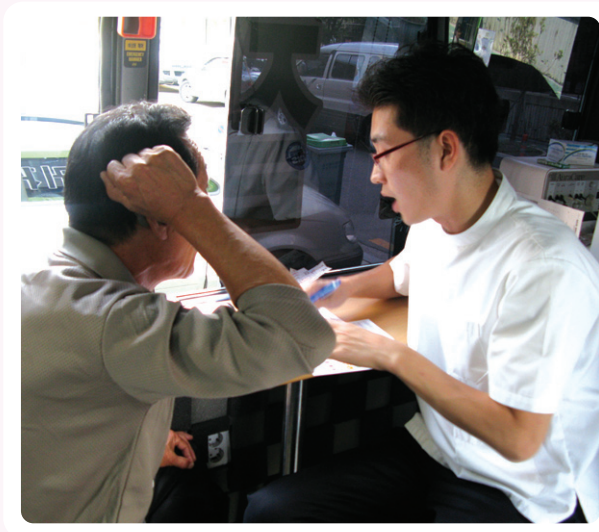
특히 편의시설 지원에 대한 사업예산을 양천구에서 전폭 지원하여 2006년 39명, 2007년 43명, 2008년 135명, 2009년 8월 현재 82명의 저소득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주었다.

12. 청각에 문제가 있는 장애인·지역주민에게 세상의 소리를 들려주는 사업을 펼쳤습니다.

양천구에 거주하는 1만7천여 장애인 중 청각에 문제가 있어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1,882명으로 등록장애인의 11%에 해당된다. 하지만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그 특성으로 인하여 지체, 뇌병변, 언어, 지적, 자폐성 등의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 등에 집중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지원에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따라서 청각에 문제가 있는 장애인은 이들을 집중적으로 재활을 지원하는 단종복지관을 이용해야 한다. 단종 복지관이라 함은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장애에 대한 집중적인 케어를 하는 곳으로 청각, 시각, 뇌성마비 등의 단종 복지관이 있다.

서울에는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39개가 있으며, 청각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단종 복지관으로 청음회관, 삼성소리샘복지관 등 2곳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청각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은 먼 거리에 위치한 전문 복지관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외 노령에 따른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하여 청각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경제적 또는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청각에 문제가 있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와 2009년 보청기 전문회사인 (주)금강디지털 보청기와 협약을 맺고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양천구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 및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금강디지털보청기 소속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기자재를 활용하여 청력검사를 통해 청력정도를 체크해 줌으로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청기를 소지하고 있는 장애인에게는 문제 유·무를 점검하여 보청기가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장애인 및 지역주민에게는 (주)금강보청기에서 무상으로 보청기를 지원하는 등 총 109명에게 세상의 소리를 찾아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3. 장애인식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 함께하는 복지사회건설에 앞장섰습니다.

양천구 인구는 50만여 명이며, 이중 등록된 장애인 인구는 1만7천여 명이다. 이처럼 많은 장애인이 살고 있음에도 장애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2008년 실시된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에 대한 차별없는 세상을 바란다’는 답변이 39.9%로 많은 장애인들이 잘못된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005년부터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없는 지역사회건설을 위해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장애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였다.

2005년 뇌졸중예방캠페인으로 시작된 장애인식개선사업은 2008년도부터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학교방문교육,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방문 장애인해교육, 지역주민 대상 장애인식개선 거리캠페인 등으로 점차 범위를 넓혔다. 또한 장애인식개선의 저변 확대를 위해 UCC 및 표어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작은 CD로 제작·배포하는 등 인식개선 사업에 앞장섰으며, 매월 놀토를 활용하여 양천구 관내 중·고등학생이 복지관을 방문하여 장애에 대한 이론과 장애에 대한 불편함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장애가 남의 일이 아닌 그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임을 알게 하여 장애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심어주었다.

이처럼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된 장애인식개선사업은 2005년 5,620명에서 2008년 12,579명, 2009년 8월 현재 12,450명으로 대폭 증가하여 장애인이 살기 좋은 양천구를 만드는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 결과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008년 장애인먼저실천본부로부터 장애인식개선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바 있다.



14. 주민이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기업,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양천구의 하나뿐인 장애인복지관으로 1만7천여 명의 장애인 모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인적·물적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복지양천만들기 사업을 계획·실시하였다.

2008년부터 실시된 복지양천만들기 사업은 양천구 관내 단체 및 기업 등과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고자 업무협약을 맺고, 이를 통하여 정기적인 봉사활동 및 안정적인 후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할 수 있었다.

2009년 현재 CJ헬로비전 양천방송, 신선설농탕, 이마트 목동점, 한국국제음악협회, 금강디지털보청기,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총 31개 기관과 복지양천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동안 장애인 대상 무료식사 제공, 보청기 무료 보급, 각종 문화공연실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나들이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후원, 인식개선 캠페인 공동 개최 등 양천구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2009년부터 안경점, 식당, 병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 및 상점을 대상으로 장애인을 위한 할인업체를 발굴하여 복지카드 소지자에게 특별한 할인혜택을 줌으로 경제적 지원과 나눔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복지공동체 사업을 확대·발전시켜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공동체 사업을 전개하여 으뜸복지가 우리 주변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5. 장애아통합보육지원센터를 운영, 조기진단과 교육으로 장애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도왔습니다.

장애영아는 조기개입 및 진단으로 장애의 심화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양천구 등록장애인 중 통합보육이 필요한 0~9세까지 장애아동은 2004년 151명에서 꾸준한 증가를 보여 2009년 7월 현재 209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장애아동 출현율이 1.05%로 이를 적용, 양천구의 장애아동을 추정하면 529명으로 이들은 통합보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통합보육지원센터는 지난 2006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통합보육지원사업에 대한 건의를 통해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통합보육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아보육 및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보육시설에 특수교사 파견, 보육시설 교사에 대한 정기적인 자문과 조기선별 진단 등 통합보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06년 초기 1개에 불과하던 양천구 통합보육시설은 2009년 15개로 확대되었고,

통합보육에 대한 운영메뉴얼도 제작·배포하여 일반보육시설의 통합보육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줌으로 통합보육에 대한 긍정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장애아통합보육센터에서 운영한 주요사업은 ▲보육시설에 특수교사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평가, 교육계획, 교수전략 등 통합보육프로그램 운영방법에 관한 자문을 위한 순회교사 파견 ▲통합보육 수행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기적인 시설장 및 교사교육 ▲장애위험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선별 진단하여 발달욕구에 맞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순회진단 ▲장애·장애위험군 아동 부모가 자녀의 발달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상담 및 교육 등이다.

그 결과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통합보육지원센터는 부모 및 전문기관의 평가에서 좋은 호평을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추가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16. 재활치료바우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저소득 장애아동의 재활을 적극 돕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소득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9년도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 사업을 도입·추진하고 있으며, 양천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재활치료바우처사업 운영기관에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선정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재활치료바우처사업 운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전국 시·군·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 후 방문실사를 통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하였고, 이에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복지사업의 우수한 사업내용과 재활치료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어 양천구를 대표하는 재활치료바우처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로써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을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재활·치료서비스를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중복장애 인정)를 가진 저소득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현재 언어치료, 특수체육,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을 2009년 8월 현재 연인원 1,201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던 저소득 장애아동의 장애심화를 예방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질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적 책임성도 강화하고 있다.



17. 장애인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복지시책을 펼쳐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장애인 인권을 존중하고,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틀 안에서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모든 장애인시책은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먼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인권을 생각하여 기존 장애인복지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치료라는 용어를 전격 배제하고, 운동발달·수중운동·작업활동·언어활동 등 긍정적 용어를 대체하여 사용함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전국의 모든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족도조사를 장애인복지관 최초로 외부기관인 성공회대학교 부설 사회복지연구소에 의뢰하여 시행함으로 내용의 객관성 및 결과의 신뢰를 검증 받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만족도에 대한 평가도 향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매월 1회 이상 이용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이용자대표, 부모회대표, 자원봉사자 대표, 복지관 직원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 시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개개인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홈페이지에 ‘관장에게 바란다’와 사랑의 소리함, 문자민원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대표적 사례로 이용자 및 부모회 의견을 반영하여 사무공간을 축소하여 복지관 1층에 보호자 대기실을 개소하였고, 구내식당 이용료 인하에 대한 욕구를 양천구에 건의하여 기존 2,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를 단행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설립된 지 5년에 불과한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전국 최고의 장애인복지관으로 외부에서 평가받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관의 입장이 아닌 장애인의 입장에서 모든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18. 양천복지뉴스를 모든 장애인가정에 전달하여 복지정보를 빠르고 쉽게 접하도록 하였습니다.

전국 장애인복지관은 모든 곳이 책자형태의 관보를 발행하여 후원자, 자원봉사자, 기타 관계기관에 발송하고 있으며, 정작 복지정보가 필요한 장애인가정에는 예산 및 제작여건으로 인하여 발송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기존 복지관들이 추구하는 관보 형식을 벗어나고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지를 만들고자 고민하였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양천복지NEWS로 양천구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가정으로 배달되고 있다.

내용면에서도 복지관에서 시행되는 사업 또는 행사를 게재하여 고른 정보를 접함으로써 복지관 사업에 장애인들의 참여가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앙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게재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전기할인, 저소득가정 핸드폰 요금 추가 할인, 보육료 지원, 여성장애인 지원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여 높은 열독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양천구가 추구하는 다양한 복지시책도 심도있게 소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쉽게 소개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게 하였다.

2005년 5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2009년 현재 38호까지 발행된 양천복지NEWS는 발행부수도 일반 장애인복지관이 생각도 못하는 1만5천부를 매회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어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특별한 복지신문을 통해 다른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보다 빠르고 생생한 복지정보를 접하고 있다.

특히 타 지자체로 이사를 가면서도 해당 지역으로 양천복지NEWS를 배달해주기를 희망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어 장애인들로부터 내용적으로도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다.

19.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전국 장애인복지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국의 장애인복지관 운영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복지관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도에 실시한 전국 장애인복지관 평가에서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당당하게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서울복지재단이 실시한 것으로 전국 155개 장애인복지관 중 3년 이상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한 119개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평가에서는 복지관 운영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동안 운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가분야로는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내용, 이용자의 권리존중, 지역사회의 관계,

복지관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내용 등 복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각 복지관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평가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평가결과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이는 지난 5년간 양천구의 장애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복지관 모든 직원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번 보건복지가족부의 평가에서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으로 으뜸 양천구에 걸맞는 으뜸장애인복지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 검증된 것이다.

또한 평가시점이었던 2007년 이후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TOP 시스템을 도입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질적·양적 성장을 하였기에 2011년에 실시될 장애인복지관 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 직원의 능력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으로 최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시장중심의 급속한 장애인 복지환경의 변화 추세에 따라 바우처 제도의 확산, 소비자 주권의 강조, 서비스 제공의 통합화와 연계 강화 등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선의 사회복지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조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전략에 있어서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장기적 대응전략과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뒷받침하고자 장애인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능력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여 창의적인 사고전환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월 정기적인 직원교육을 통해 정책변화에 대한 직무대응과 서비스 창출, 고객응대 향상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창출, 직무소양교육을 통한 자질향상,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인성교육을 통한 서비스 마인드 강화 등 다각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상·하반기 업무혁신 발전을 위한 직원연수를 실시하여 중장기 발전의 전략을 수립하고 이러한 계획을 사업에 어떻게 변영할지를 고민하는 등 양천구 장애인복지의 쉼 없는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밖에 신입직원 업무브리핑 정례화를 통한 단위사업별 추진전략 수립과 직원 직무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분기별 사업평가회의를 통해 사업전반에 대한 이해증진과 연계협력 방안에 대한

자질향상을 추구하였다. 또한 재활·치료부분에 투입되는 외부강사에게는 교안작성 및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서비스내용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지난 2005년부터 꾸준히 진행한 결과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 장애인복지시설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실천중심의 사업수행으로 장애인먼저 실천운동본부로부터 ‘장애인식개선 실천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뤄냈다.